

전주 원도심 규제개혁 시민의견 듣는다

27일~내년 1월 10일까지 원도심 중앙·풍남·노송동 등 역사도심지구 주거 시민 대상 의견 접수

전주시가 지구단위계획상 역사도심 지구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원도심의 규제개혁과 관련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원도심 중앙·풍남·노송동 등 역사도심지구 151만㎡(약 46만평)에 주거 시민들 상대로 규제개혁에 대한 접수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곳은 지난 2018년 4월 역사도심지구로 묶여 프랜차이즈 업종과 개발 규모, 건축물 높이 등이 엄격히 제한돼 왔다.

실제 역사도심지구에 위치한 인근 건축물 높이는 2~3층 이하이며, 본사가 전주에 소재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업종은 입점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규제개혁을 희망하는

시민의 목소리도 지속해서 높고 있다. 이는 시의 판단이다.

시는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거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여기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 확대를 검토하고, 개발 규모, 건축물 높이 등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완화하는 방안도 찾을 예정이다.

다.

시는 이같이 규제 완화에 대한 완성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황남중 도시계획과장은 "용역 추진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과감히 바꿔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아영 기자



신타 성탄선물 손길이 소년원에 전달되며 추운 겨울 온정의 사랑온도가 뜨겁게 오르고 있다.

전주소년원에 따뜻한 성탄선물

식이의음악세상·교촌치킨전북지사, 치킨 200상자 전달

신타 성탄선물 손길이 소년원에 전달되며 추운 겨울 온정의 사랑온도가 뜨겁게 오르고 있다.

장제원 법무부 전주소년원장, 이혜성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장에 따르면 21일 식이의음악세상(대표 김은식), 교촌치킨전북지사(지사장 이수용) 등이 소년원을 찾아 교촌치킨 200상자(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알렸다.

'식이의음악세상, 교촌치킨전북지사는 매년 사회공헌에 앞장서 온 지역 대표 봉사의 왕으로도 전평이 나왔다.

이 두기업의 대표는 2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 다가오는 성탄절 신타 선물로 꾸려진 교촌치킨의 신메뉴 한 상자씩을 건네며, 온정을 베풀었다.

김은식 대표는 "이수용 지사장과 함께 보호소년 학생들에게 성탄선물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주변의 청소년들이 행복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제원 원장과 이혜성 관장은 "지역사회의 보살핌은 우리 청소년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준다"며 "보호소년들은 남들이 즐거울 때 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또 여기에 장 원장이 관장은 후원을 연계해준 전주소년원협의회 황동현 명예회장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김영태 기자

2023세계시니어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다짐

전주시의회, 국내외 여행사 대표·전북 배드민턴협회와 차담회 가져... 8월 전주서 대회 개최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지난 20일 국내외 여행사 대표, 전북 배드민턴협회(협회장 심용현)와 함께 차담회를 가졌다.

이번 차담회는 배드민턴 여행상품

출시를 위해 전주에 방문한 태극 여행사와 국내 여행사 등 관광 실무자들과의 만남으로 전주의 관광 인프라를 점검·개선하고 2023년 세계시니어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주에서는 2023년 배드민턴 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개최하는 세계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내년 8월 개최될 예정이다.

이기동 의장은 "배드민턴 관광상품의 개발로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져 지역에 활력을 가져다줄 것"이며 "전주시의회는 스포츠 관광객 유치와 2023세계시니어배드민턴 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전주시 완산구, 공원 월동점검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동절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안전을 위해 관내 공원 월동점검을 펼쳤다.

이번 점검은 시민 이용이 많은 화상피 난방기 작동여부 점검, 음수대 동파예방조치, 계량기 및 모터시설 보온재 교체 등 시설물 점검 및 동파조치를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143개 공원의 8,000여 점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 2회 공원이용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추운 겨울 건강관리를 위해 공원을 찾는 주민들을 위해 공원의 월동점검을 마쳤다"며 "공원이 우리 생활과 밀착해 있는 만큼 동절기에도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금암119안전센터' 1팀, Best One Team 선정

현장활동 우수기법 영상공모제 도내 1위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2022년 4분기 현장활동 우수기법 영상공모제에서 금암119안전센터 1팀이 Best

One Team 최우수팀으로 1위에 선정됐다.

Best One Team'은 팀장 중심의 팀워크



크 강화로 안전사고를 줄이고 질 높은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시책이다.

'현장 활동 우수기법 영상공모제'은 현장활동을 영상으로 제작해 현장 대응 전문성 강화를 높이기 위해 소방본부에서 추진 중인 프로그램이다.

전주덕진소방서 금암119안전센터는 '소방펌프차 겨울철 메인밸브 동결 시방수 훈련'을 주제로 현장 활동 노하우 영상을 제작했으며, 2022년 4분기 현장활동 우수기법 영상공모제의 최우수 사례로 채택됐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노력속에 Best One Team에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팀장 중심의 팀워크 형성과 선배들의 현장 노하우 전수로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전동성당·한옥마을 소방안전 지도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정수)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대비해 전주전동성당과 한옥마을을 방문해 화재예방 강화 위한 현장지도 21일 실시했다.

이번 현장행정은 다가오는 연말 다수 인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예상되

는 '종교시설·문화집회시설'에 대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 화재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계자에게 화재예방 안전관리 사항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이날 성



당 안전관리 실태확인하고 한옥마을

을 일대를 함께 두루 살피면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주요내용으로는 '전동성당 건축물 구조·가연물 등 화재취약요소 확인,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실태 점검, 한옥마을 화재취약요소 확인 경기전 인근 소방출동로 점검, 관계인 화재예방안전 당부' 등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이레누수, 주거취약계층 위한 후원금 전달

전북이레누수의 양인수 대표는 지난 19일 매일 1만 원씩 적립한 365만 원을 후원금을 주거취약계층 가구 지원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전주시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 기탁은 주택에 누수가 발생해도 형편이 어려워 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도한 수도 요금이 몇 달째 발생하는 가구 등 주거취약가구를 돕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주거취약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양인수 전북이레누수 대표는 "주거 위기는 많은 사람의 문제이지만, 취약계층에게 주거 위기는 삶에 직결된 문제"며 "후원금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은주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 후원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많은 분의 후원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